

번역으로 발견된 ‘조선(인)’ *

- 자유토구사의 조선 고서 번역을 중심으로 -

박 상 현**

(e-mail : koreaswiss@hanmail.net)

目 次

1. 들어가면서
 2. 자유토구사의 번역자들
 3. 자유토구사의 임원진
 4. 일본인 번역자들이 발견해 낸 ‘조선(인)’
 5. 나오면서
-

1. 들어가면서

일제강점기에 조선¹⁾의 고서(古書)가 일본어로 왕성하게 번역된 시기가 있었다. 1910년대와 1920년대였다. 1910년대를 주도했던 것은 ‘조선연구회’였고, 1920년대를 리드했던 것은 ‘자유토구사(自由討究社)’였다.²⁾

조선 강탈 직후인 1910년 10월에 조선 강제 병합을 기념하기 위해 호소이 하지메(細井肇)는 기쿠치 켄죠(菊地謙讓)³⁾와 함께 조선연구회를 설립했다. 하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8-411-J00701)

**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 조교수 일본문화학 전공

1) 이때 ‘조선’이란 반드시 ‘조선시대’에 출판된 전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일제강점기 이전인 1908년에는 ‘조선고서간행회’가 조선 고서를 일본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한편 1940년대에도 조선 관련 일본어 번역이 있었다. 하지만 이때에는 조선의 근대문학작품이 번역되었고, 이들 작품은 『조선소설대표작집』(13편, 1940년)과 『조선문학선집(選集)』(전2권 11편, 1940년)에 각각 수록되었다.

3) 기쿠치 켄죠는 『국민신문』의 기자 자격으로 청일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조선으로 건너왔다. 이후 그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경성일보』의 전신인 『한성신보』 주필로 활약하게 된다.

지만 호소이는 이 단체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1911년에 아오야기 쓰나타로(靑柳綱太郎)⁴⁾에게 그 경영권을 넘겨주고 일단 일본으로 건너갔다. 조선에서 3·1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호소이는 그 원인을 수천 년의 특수한 역사와 습속 및 심성(心性)을 가진 조선인을 이해하지 못한 식민정책에서 찾았고, 내선(內鮮)융합을 위해서는 조선문화연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된다.⁵⁾ 그리고 그 실천으로서 1920년 봄에 호소이는 오바 카코(大庭柯公)의 협력으로 조선관계서적 출판사인 자유토구사를 설립하여 자신이 편집자 겸 발행인이 되었다. 또한 동경에는 본사를, 경성에는 지사를 각각 두었다.

그런데 조선연구회와 자유토구사의 조선 고서 번역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들은 조선 고서를 번역하면서 조선에서 어떤 모습을 읽어냈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선 고서를 번역하는데 큰 관심을 보인 사람은 다름 아닌 호소이 하지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호소이 하지메가 사장으로 있으면서 『통속조선문고』와 『선만(鮮滿)총서』와 같은 조선 고서를 번역·출판했던 ‘자유토구사’를 우선 고찰한다.⁶⁾ 그리고 어떤 사람이 번역을 담당했⁷⁾, 번역을 통해 그들이 어떤 ‘조선(인)’을 발견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자유토구사의 번역자들

자유토구사는 1921년에 『통속⁸⁾조선문고』⁹⁾를 출간한다. 전12권이었다. 여기에는 나가노 토라타로(長野虎太郎)와 호소이 하지메가 편저한 『봉당사화의 검토』와 같은 편저서도 있었고 저서도 있었다¹⁰⁾. 하지만 주로 조선 고서가 번

다카사키 소지 저·이규수 역(2006) 『식민지조선의 일본인들』 역사와비평사. pp.59-60

4) 그는 1908년에 조선으로의 이민을 장려하는 『한국식민책』이라는 저서를 발표한다. 또한 궁내부에서 주사급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다카사키 소지 저·이규수 역(2006) 위의 책(『식민지조선의 일본인들』), p.98

곤도 시로스케 저·이연숙 역(2007) 『대한제국황실비사』 이마고, p.54

5) 細井肇(1921) 『通俗朝鮮文庫』第2輯 自由討究社. pp.1-2

6) 조선연구회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검토할 예정이다.

7)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필자가 아는 한 최혜주의 논문밖에 없다. 그는 “당시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이 조선 고서를 번역했다”고 지적한다.

최혜주(2009) 「한말 일제하 재조일본인의 조선 고서 간행사업」 『대동문화연구』 제66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p.417-448

8) 이때 ‘통속(通俗)’이란 ‘언문일치체’로 번역했다는 의미이다.

9) 원본을 직접 보았더니 4·6판(判)이었다.

10) 이밖에도 호소이 하지메의 편저로는 『이조의 문신(文臣)』(제12집)이 있고, 저서로는 『대아유기(大亞遊記)』(제11집)가 있다. 또한 기쿠치 켄조 등이 저술한 『각종 조선평론』(제12집)도 있다.

역·소개되어 있었다.¹¹⁾ 번역자를 중심으로 그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12)

『통속조선문고』(전12권) ¹³⁾	
①호소이 하지메 (細井肇)	『목민심서』(제1집 수록), 『장릉지』(제2집 수록), 『아언각비』(제10집 수록), 『장화홍련전』(제10집 수록)
②시마나카 유조 (島中雄三)	『사씨남정기』(제2집 수록), 『구운몽』(제3집 수록), 『광한루기』(제4집 수록), 『추풍감별곡』(제8집 수록)
③시미즈 켄키치 (清水鍵吉)	『병자일기』(제6집 수록), 『팔역지』(제8집 수록)
④이마무라 토모 (今村鞆)	『조선세시기』(제4집 수록) ¹⁴⁾
⑤나가노 나오히코 (長野直彦)	『징비록』(제5집 수록) ¹⁵⁾
⑥시라이시 아쓰시 (白石重)	『홍길동전』(제7집 수록)
⑦오사와 류지로 (大沢竜二郎)	『심양일기』(제9집 수록)
⑧조경하(趙鏡夏)	『심청전』(제9집 수록)

『통속조선문고』 제10집에는 『장화홍련전』이 수록되어 있는데, ‘趙鏡夏訳 細井肇関’로 적혀 있다. 곧 조경하가 번역을 한 후, 나중에 호소이 하지메가 수정·윤색을 했다는 것이다.¹⁶⁾ 이처럼 일본어로 번역된 조선 고서의 번역 과정을 살펴보면, 조선인 번역자가 일본어로 일단 번역한 것을 후에 일본인이 ‘수정·윤색’한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수정·윤색이 가미된 번역서의 경우, 본고에서는 수정·윤색한 자를 ‘최종적인’ 번역자로 판단한다.¹⁷⁾ 여기에 들

11) 조선 고서 가운데에서도 특히 고소설이 중점적으로 번역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줄고(2009) 「제국일본과 번역-호소이 하지메의 조선 고소설 번역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제71집, 한국일어일문학회, pp.433-434

12) 번역서가 많은 번역자 순으로 재배열했다.

13) 『통속조선문고』 제5집에는 『남훈태평가』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역자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14) 조선 순조 때의 학자 홍석모가 지은 『동국세시기』를 번역한 것이다.

今村鞆(1921) 「朝鮮歲時記の訳出について」 『通俗朝鮮文庫』 第4輯 自由討究社, pp.1-2

15) 시미즈 켄키치가 교정을 봤다.

清水鍵吉(1921) 「丙子日記の訳述に就て」 『通俗朝鮮文庫』 第6輯 自由討究社, p.2

16) 이와 같이 도착 언어의 네이티브가 원천 언어의 네이티브와 함께 원천 텍스트를 도착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드문 현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선교사 마틴은 『만국공법』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중국인과 공역했다. 丸山眞男·加藤周一(1998) 『翻訳と日本の近代』 岩波新書, p.105

17) 한 예로써 『장화홍련전』을 보자. 호소이가 자필로 적은 「장화홍련전을 번역하고」에 따르면, 그는 조경하가 일단 번역한 내용 중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생략했다고 밝힌다. 특히 권두와 권말에

어가는 작품으로는 『광한루기(춘향전)』 등이 있다. 호소이는 「광한루기의 권말에」에서 역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광한루기(춘향전)』는 조정하가 구어역한 것을 나중에 친구인 시마나카 유조가 통속적인 구어체로 윤색했다.¹⁸⁾ 또한 『추풍감별곡』도 조정하가 번역한 것에 시마나카가 윤색한 것이었다.¹⁹⁾

또한 자유토구사는 1922년-1923년에 『선만총서』를 출간한다. 모두 11권²⁰⁾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도 기쿠치 켄죠의 『각종 조선평론』(제1권)과 같은 저서도 있지만²¹⁾, 역시 주로 조선 고서가 번역되었다.

<표2>

『선만총서』(전11권)	
호소이 하지메	『해유록』 상권(제1권 수록), 『제비 다리(燕の脚)』 상권(제1권 수록), 『해유록』 하권(제2권 수록), 『동경정의』 상(제3권 수록) ²²⁾ , 『봉황금』 하권(제3권 수록) ²³⁾ , 『동경정의』 하(제5권 수록) ²⁴⁾ , 『운영전』(제11권 수록) ²⁵⁾
시미즈 켄키치	『주영편』 상권(제8권 수록), 『숙향전』 상권(제8권 수록), 『주영편』 하권(제11권 수록), 『오백년기담(奇談)』(제11권 수록)
⑨히라이와 유스게(平岩佑介)	『삼국유사』(제6권 수록) ²⁶⁾ , 『파수록』(제10권 수록)
시라이시 아쓰시	『봉황금』 상권(제2권 수록) ²⁷⁾

나온 권선징악과 관련된 내용 및 『장화홍련전』의 화자가 독자에게 교훈을 주고자 했던 내용을 생략했다고 한다. 이런 호소이의 적극적인 개입을 고려한다면 역시 『장화홍련전』의 최종적인 번역자는 호소이라고 생각된다.

18) 細井肇(1921) 「広寒樓記の卷末に」 『通俗朝鮮文庫』 第4輯 自由討究社. p.77

19) 細井肇(1921) 「第八輯の卷頭に」 『通俗朝鮮文庫』 第8輯 自由討究社. p.5

20) 원래는 12권까지 발행할 예정이었는데, 관동대지진 때 해당 원고가 소실되는 바람에 전11권으로 완결되었다.

21) 이밖에 제1권에는 『가두(街頭)』(창작, 細井肇), 『시원』(詩苑)(한시 등, 細井肇)이 있고, 제2권에는 『대동유기』(対星樓山人 외), 『조선취미』(찬조원 각위 집필)가 있다. 제3권에는 『시천교의 취지』(細井肇 지)가 수록되어 있고, 제4권에는 『슬픈 나라(悲しい国)』(평론, 고 山地白雨 유고)가 있다. 제5권에는 『조선문제강연집』(細井肇 외)이 실려 있고, 제7권에는 『정감록』(細井肇 편지)이 있다. 그리고 제9권에는 『조선의 교육』(弓削幸太郎, 전 조선총독부 학무과장)이 실려 있다.

22) 호소이 하지메가 주석을 달았다.

23) ‘역자의 말’ 이 없다.

24) 호소이가 주석을 붙였다.

25) ‘역자의 말’ 이 없다.

26) 호소이는 『삼국유사』가 번역된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이 책이 너무 난해해서 번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을 몇 차례 주위 사람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호소이의 속내를 알아차린 히라이와 유스게가 『삼국유사』번역을 자청했고, 드디어 그에 의해 『삼국유사』의 일본어 번역본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도 조선인이 일단 번역한 것에 나중에 일본인이 수정·윤색한 것이 있다. 『흥부전』인 『제비 다리』 상권은 정재민이 번역한 것을 후에 호소이가 수정·윤색한 것이다. 『봉황금』 상권은 노승갑이 번역한 것을 시라이시가 수정·윤색했고, 『봉황금』 하권은 노승갑이 일단 일본어로 옮긴 것을 나중에 호소이가 수정·윤색한 것이다.

호소이 하지메는 자유토구사의 문을 닫고, 1924년에는 봉공회를 설립하여 『조선문학걸작집』 전10편을 편찬한다. 하지만 이것은 『통속조선문고』와 『선만총서』에 수록된 것을 다이제스트한 것이었다.²⁸⁾ 따라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조선문학걸작집』에 수록된 작품은 『통속조선문고』 및 『선만총서』와 겹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수록된 작품명만 간단히 정리한다.

<표3>

『조선문학걸작집』 (전10편)
『춘향전』 ²⁹⁾ (역자명 없음) ³⁰⁾ , 『심청전』(조경하 역), 『제비 다리』(정재민 역 / 호소이 하지메 수정·윤색), 『사씨남정기』(역자명 없음) ³¹⁾ , 『추풍감별곡』(조경하 역), 『장화홍련전』(조경하 역 / 호소이 하지메 수정·윤색), 『구운몽』(역자명 없음) ³²⁾ , 『남훈태평가』(역자명 없음), 『숙향전』(시미즈 켄키치 역), 『운영전』(호소이 하지메 역)

그런데 자유토구사가 발간한 『통속조선문고』와 『선만총서』에 수록된 조선 고서를 번역했던 사람들은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

細井肇(1923) 「三国遺事」 『鮮滿叢書』第6卷 自由討究社. p.72

27) 노승갑이 일단 번역했고, 시라이시 아쓰시가 나중에 수정·윤색했다.

28) 참고로 호소이 하지메가 죽은 후인 1936년에 조선문제연구소는 『조선총서』(전3권)를 발행한다. 이것은 작고한 호소이가 주축이 되어 번역·출판한 도서 가운데 14권을 추린 것이다. 『목민심서』(細井肇 역)·『아언각비』(細井肇 역)·『주영편』(清水鍵吉 역)·『해유록』(細井肇 초역)·『병자일기』(清水鍵吉 역)·『정비록』(長野直彦 역)·『봉당사화의 검토』(長野虎太郎·細井肇 편저)·『이조의 문신』(細井肇 편저)·『장릉지』·『삼국유사』(平岩佑介 초역)·『오백년기담(奇談)』(清水鍵吉 초역)·『조선세시기』(今村靉 역주)·『팔역지』(清水鍵吉 역)·『정감록』(細井肇 편저)

29) 『춘향전』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일본에 최초로 소개한 사람은 나카라이 토스이(半井桃水)라 한다. 그는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이 임명한 최초의 조선 통신원이었는데, 1882년 6월 25일부터 『춘향전』을 번역해서 연재했다.

다카사키 소지 저·이규수 역(2006) 앞의 책(『식민지조선의 일본인들』). p.27

30) 『통속조선문고』에 수록되어 있는 『광한루기』의 역자가 시마나카 유히요이므로, 이 번역서의 역자도 시마나카 유히요라고 추정된다.

31) 같은 이유로 이 번역서의 역자도 시마나카일 것이다.

32) 마찬가지로 이유로 『사씨남정기』의 역자도 시마나카라고 생각된다.

3. 자유토구사의 임원진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 당시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이 조선 고서를 번역했다는 정도이다.³³⁾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자유토구사 후원자 명사 방명록’³⁴⁾ 곧 ‘자유토구사의 임원진 명부’이다.

『통속조선문고』와 『선만총서』에는 각각 임원진 명단이 나와 있다. 이들 사이에는 직위의 변화, 새로운 임원의 추가 및 교체가 보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거의 같은 인물이 수록되어 있다.

<표4>

『통속조선문고』에 수록된 ‘자유토구사 후원자 명사 방명록’³⁵⁾

명예고문	고문 ³⁶⁾	평의원	상(常)의원 ³⁷⁾	사내동인(社內同人)
石塚英藏 동양척식주식회사 총재	井上角五郎 중의원 의원	今村靱 이왕직 ³⁸⁾ 서무과장	大庭柯公 読売신문 편집국장	平岩佑介 자유토구사 주간
早川千吉郎 만주철도주식회사 사장	浜口雄幸 전 대장(大藏)차관	加藤房藏 전(前) 경성일보 사장	中野正剛 東方時論 주간	白石重 자유토구사 편집주간
加藤高明 귀족원 의원 자작(子爵)	大石正己 전 농상무대신	丸山鶴吉 총독부 경무국장	長野直彦 報知신문 경성특파원	武田範之* ³⁹⁾ 자유토구사 서무주임
水野鍊太郎* 조선정무총감	河野広中 전 농상무대신	牧山耕藏 조선신문 사장	山副昇 読売신문 경성특파원	高島種夫 자유토구사 간사
美濃部俊吉 조선은행 총재	横田五郎 조선총독부 법무국장	藤波義貫 총독부 통역관	島中雄三 ⁴⁰⁾ 문화학회 주간	諸橋鐵造 자유토구사 간사
		権藤四郎介 ⁴¹⁾ 조선신문 부사장		長尾敏夫 자유토구사 간사
	竹内友次郎 총독부 체신국장	有賀光豊 식산은행 두취(頭取)		細井肇 자유토구사 사장

33) 최혜주(2009) 앞의 논문(「한말 일제하 재조일본인의 조선 고서 간행사업」). pp.417-448

34) 細井肇(1922) 『鮮滿叢書』第3卷 自由討究社. p.4

35) 細井肇(1921) 『通俗朝鮮文庫』第10輯 自由討究社. pp.16-17

	江木翼 귀족원 의원	青柳綱太郎 경성신문사 사장		
	安達謙藏 중의원 의원	弓削幸太郎 조선총독부 전 학무과장		
	箕浦勝人 전 체신대신	鈴木一来 동척 경성 지점장		

<표5>

『선만총서』에 수록된 ‘자유토구사 후원자 명사 방명록’ 42)

명예고문	고문	평의원	상(常)의원	사내동인 (社内同人)
石塚英藏 동양척식주식회사 총재	井上角五郎 중의원 의원	今村鞆 이왕직 서무과장	大庭柯公 読売신문 편집국장	平岩佑介 자유토구사 주간
早川千吉郎 만주철도주식회사 사장	浜口雄幸 전 대장(大藏)차관	加藤房藏 전(前) 경성일보 사장	中野正剛 東方時論 주간	白石重 자유토구사 편집주간
加藤高明 귀족원 의원	大石正己 전 농상무대신	丸山鶴吉 총독부 경무국장	長野直彦 報知신문	犬飼時男* 자유토구사

36) 『통속조선문고』(제9집, 1921년)에는 고문직에 고쿠부 쇼타로(国分象太郎 : 이왕직 <李王職> 차관)가 참여했으나, 여기에서는 빠졌다. 쓰시마 출신의 통역관이었던 그는 동경외국어대학교의 전신인 동경외국어학교의 조선어과에서 조선어를 전공했다. 또한 조선연구단체인 한국연구회(1902년-1905년)와 조선고서간행회(1908년-1918년)에서 평의원으로도 활동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테노 아키라 편저 오정환·이정환 역(2006) 『그때 그 일본인들』 한길사. p.109

37) ‘상(常)의원’이란 ‘상치(常置)’ 곧 ‘상임(常任)’ 평의원을 말한다.

38)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한 후, 대한제국의 ‘황제’를 ‘이왕’이라고 칭하기 시작한다. 또한 왕족 및 공족(公族)의 가문을 관장하는 ‘이왕직’을 두었다. 이것은 조선 왕실의 일을 맡아 보던 관청이었다. 여기에는 장관 1명, 차관 1명, 사무관 36명과 그 밖에 몇몇 직원이 있었다.

다테노 아키라 편저 오정환·이정환 역(2006) 앞의 책(『그때 그 일본인들』). p.109

39) 호소이 하지메는 아오야기 쓰나타로가 쓴 『조선통치론』의 ‘발(跋)’에서 당시 낭인(浪人)들의 아성이었던 창덕궁에서 1908년에 다케다 노리유키(武田範之)와 교류를 가졌다고 밝힌다.

青柳綱太郎(1923) 『朝鮮統治論』 朝鮮研究会. p.1

40) 호소이 하지메와 절친한 사이였다.

41) 호소이는 『조선통치론』의 ‘발’에서 당시 낭인들의 아성이었던 창덕궁에서 1908년에 곤도 시로스케(権藤四郎介)와 교류를 가졌다고 밝힌다. 곤도는 후쿠오카(福岡) 출신으로 궁내부 사무관으로 일했다. 이토 히로부미의 하수인이기도 했다.

青柳綱太郎(1923) 앞의 책(『朝鮮統治論』). p.1

곤도 시로스케 저·이연숙 역(2007) 앞의 책(『대한제국왕실비사』). p.47

42) 細井肇(1922) 『鮮滿叢書』 第3卷 自由討究社. p.4

자작(子爵)			경성특파원	서무주임
水野鍊太郎* 내무대신	河野広中 전 농상무대신	牧山耕藏 조선신문 사장	山副昇 読売신문 경성특파원	高島種夫 자유토구사 간사
美濃部俊吉 조선은행 총재	上林敬次郎* 이왕조 차관	藤波義貫 총독부 통역관	島中雄三 문화학회 주간	諸橋鐵造 자유토구사 간사
	横田五郎 조선총독부 법무국장	権藤四郎介 조선신문 부사장		長尾敏夫 자유토구사 간사
	竹内友次郎 총독부 체신국장	有賀光豊 식산은행 두취(頭取)		細井肇 자유토구사 사장
	江木翼 귀족원 의원	青柳綱太郎 경성신문사 사장		
	安達謙藏 중의원 의원	弓削幸太郎 조선총독부 전 학무과장		
	箕浦勝人 전 체신대신	鈴木一來 동척 경성 지점장		

명예고문인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는 <표4>에서는 그 직위가 조선정무총감이었으나, <표5>에서는 내무대신으로 나온다. 간바야시 케지로(上林敬次郎)는 <표4>에서는 등장하지 않으나, <표5>에서는 고문 자격으로 새로 가담한다.⁴³⁾ 그는 이왕직 차관이었다. <표4>에서 다케다 노리유키(武田範之)는 사내동인에 들어갔으나, <표5>에서는 그를 대신해서 이누카이 토키오(犬飼時男)가 참가했다.⁴⁴⁾

이런 자유토구사의 임원진에 대해 최혜주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그의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유토구사의 임원진에는 언론계와 총독부 관계자가 적지 않았다.

명예고문 미즈노(水野鍊太郎)는 정무총감으로 총독 다음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였다. 총독의 대리인으로서 이 연구회를 지원했다. 고문 가운데 주목되는 인물은 이노우에(井上角五郎)와 아다치(安達謙藏)다. 이노우에는 조선

43) 명예고문과 고문은 특별회비를 내는 후원자였다.

최혜주(2009) 앞의 논문(「한말 일제하 재조일본인의 조선 고서 간행사업」). p.444

44) 표<4>와 표<5>에서 이들 이름 끝에 ‘*’를 붙여 놓았다.

의 최초 신문 『한성순보』를 창간하는데 기여한 인물이다. 아다치는 한성순보 사장을 지내고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가담했다. 평의원에는 언론계 인물이 많이 들어 있다. 경성일보, 조선신문, 경성신문 사장으로 이들은 어용언론인으로 식민 통치에 협력했다. 총독부 관련 인물로는 이마무로(今村鞆), 마루야마(丸山鶴吉), 유게(弓削幸太郎)가 있다. 이마무라⁴⁵⁾는 경찰로 병합에 공을 세우고 이왕직의 사무관을 지내면서 조선 풍속연구의 대가로 알려진 조선통이다. 마루야마는 경무국장을 지낸 인물이며 유게는 학무국에서 식민교육의 기초를 만들었다. 아리가(有賀光豊)는 총독부 이재과장 등을 역임하고, 조선 재계의 영향력을 가진 식산은행의 두취로서 연구회에 재정적 지원을 해준 사람이다.⁴⁶⁾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물겠다. 『통속조선문고』와 『선만총서』에 수록되어 있는 조선 고서를 번역한 번역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표1>과 <표2>에서 제시했듯이, 『통속조선문고』와 『선만총서』에 실려 있는 조선 고서를 번역한 사람은 총 9명이다. 일본인으로는 이마무라 토모, 나가노 나오히코, 시마나카 유죠, 히라이와 유스게, 시라이시 아쓰시, 호소이 하지메, 시미즈 켄키치, 오사와 류지로가 있고, 조선인으로는 조경하가 있다.

<표4>와 <표5>의 ‘자유토구사 후원자 명사 방명록’ 곧 ‘자유토구사의 임원진’은 일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는데, 조선인인 조경하를 제외하고 조선 고서를 번역한 일본인 가운데 ‘자유토구사의 임원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시미즈 켄키치’와 ‘오사와 류지로’ 뿐이었다.

다시 말해서 『조선세시기』를 번역한 이왕직 서무과장이었던 이마무라 토모는 자유토구사의 평의원이었다. 『징비록』을 일본어로 옮긴 호치(報知)신문 경성특과원이었던 나가노 나오히코는 자유토구사의 상의원이었고, 『사씨남정기』등을 번역한 문화학회 주간이었던 시마나카 유죠도 상의원에 속해 있었다. 자유토구사 주간이었던 히라이와 유스게, 자유토구사 편집주간이었던 시라이시 아쓰시, 자유토구사의 사장이었던 호소이 하지메는 사내동인에 들어가 있었다.

그렇다면 자유토구사의 ‘임원진’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시미즈 켄키치’와 ‘오사와 류지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유토구사는 동경에는 본사를, 경성에는 지사를 각각 두었는데, ‘시미즈 켄키치’는 동경 본사에서 사

45) 1908년 충청북도 경찰부장으로 조선에 부임했다. 그는 조선인을 지도 계몽하고 조선 풍속의 개선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조선의 풍속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조선풍속집』(1914년)으로 세상에 내놓았다(다카사키 소지 저·이규수 역<2006> 앞의 책<『식민지조선의 일본인들』>. p.100) 하지만 남근우는 그의 연구는 일선동조론에 조선 정체(停滯)사관을 접목한 동화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남근우(2008) 『‘조선민속학’과 식민주의』 동국대출판부. p.122

46) 최혜주(2009) 앞의 논문(「한말 일제하 재조일본인의 조선 고서 간행사업」). p.429

무를 담당하고 있었다.⁴⁷⁾ 그는 조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는데 학문상의 벗인 호소이 하지메에게서 『징비록』의 교정을 부탁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조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는 시미즈 켄키치 스스로가 나도 조선에 관한 것을 번역하겠다고 자청해서 번역한 것이 다름 아닌 『병자일기』였다.⁴⁸⁾

한편 ‘오사와 류지로’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아오야기 쓰나타로의 『조선통치론』에 의하면 1908년에 ‘오사와 류지로’는 창덕궁에서 호소이 하지메 등과 교류를 가졌다고 한다.⁴⁹⁾ 또한 조선연구회 주간(主幹)이자 경성신문사 사장인 아오야기 쓰나타로⁵⁰⁾는 오사와 류지로가 호소이 하지메 등과 함께 조선연구회에서 조선의 고사고서(古事古書)를 번역·출간했다고 한다.⁵¹⁾

요컨대 『통속조선문고』와 『선만총서』에 수록되어 있는 조선 고서를 주도적으로 번역한 것은 자유토구사의 ‘임원진’이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언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상의원, 그리고 자유토구사의 사내동인이 주축이었다. 또한 자유토구사의 임원은 아니었지만 자유토구사의 본사에서 사무를 맡았던 시미즈 켄키치도 조선 고서를 일본어로 옮기는 데 참여했다. 따라서 조선 고서를 번역했던 일본인 8명 가운데 7명이 자유토구사와 깊게 관련된 인물이었다.

호소이 하지메가 어떤 기준으로 번역자를 선정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⁵²⁾ 하지만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호소이는 『통속조선문고』와 『선만총서』를 출판할 때 번역자를 자유토구사 자체 내에서 ‘우선적’으로 조달했다. 여기에는 이마무라 토모⁵³⁾, 나

47) 清水健吉(1921)「丙子日記の訳述に就て」『通俗朝鮮文庫』第6輯 自由討究社. p.7

48) 그는 『병자일기』를 번역하면서 이마무라 토모가 번역했던 『조선세시기』의 번역 스타일을 참조했다고 밝힌다.

清水健吉(1921) 앞의 책(「丙子日記の訳述に就て」). pp.2-7

49) 青柳綱太郎(1923) 앞의 책(『朝鮮統治論』). p.1

50) 아오야기 쓰나타로는 호소이 하지메의 친구이다.

青柳綱太郎(1921)「跋」『鮮滿の経営』 自由討究社. p.1

51) 오사와 류지로는 중국의 대련(大連)에 체재하면서 1920년에는 『왕양명학전(王陽明學傳)』을 저술하기도 하고, 1924년에는 양계초가 지은 『목자』를 번역하기도 했다. 한적에 조예가 깊었다.

青柳綱太郎(1921) 앞의 책(「跋」). p.1

52) 단, 『삼국유사』의 경우는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삼국유사』의 일본어 번역본을 내고 싶어 했던 호소이 하지메의 숙내를 알아차린 히라이와 유스게가 자청함으로써 『삼국유사』의 번역본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53) 이마무라 토모는 호소이 하지메의 엄명으로 『조선세시기』를 번역하게 되었다며 그 번역 경위를 밝힌다. 또한 그는 호소이 하지메와는 오랜 친구라고 말한다.

今村軾(1921)「朝鮮歲時記の訳出について」『通俗朝鮮文庫』第4輯 自由討究社. p.1

가노 나오히코, 시마나카 유죠⁵⁴⁾, 히라이와 유스게, 시라이시 아쓰시⁵⁵⁾, 호소이 하지메, 시미즈 켄키치가 들어간다.

둘째, 호소이는 번역자를 선정할 때 조선 고서를 번역한 경험이 있었는가의 여부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번역자 가운데 이전에 조선 고서를 번역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⁵⁶⁾ 또한 그는 번역자를 정할 때, 조선 전문가인가의 여부도 크게 고려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마무로 토모를 제외한 나머지 번역자는 자유토구사의 조선 고서 번역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전에는 조선에 관한 논저를 발표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첫 번째 지적과도 관련되는데, 오히려 그는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했다. 그와 같은 사정은 그와 시마나카 유죠⁵⁷⁾, 시미즈 켄키치, 오사와 류지로, 조경하가 절친한 사이였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조경하⁵⁸⁾의 경우를 보자. 그와 호소이 하지메가 어떤 사이였나는 『장화홍련전』의 번역 과정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장화홍련전』을 번역할 때, 일단 조경하가 『장화홍련전』을 일본어로 옮기면, 호소이가 거기에 수정·

54) 시마나카 유죠에 의하면 어느 날 갑자기 호소이 하지메로가 자기에게 『사씨남정기』를 보내왔다고 한다. 너밖에 번역할 사람이 없으니 몇날 며칠까지 번역해 달라는 것이었다. 번역자 선정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島中雄三(1921) 「謝氏南征記の口語訳について」 『通俗朝鮮文庫』第2輯 自由討究社. p.3

55) 호소이 하지메는 「제8집의 권두에」에서 제8집의 교정을 시라이시 아쓰시에게 일임했다고 밝힌다. 또한 그는 『동경정의』의 상권에 붙인 주(注疏) 가운데 93쪽에서 150쪽은 호소이 자신이 했지만, 그 전후는 시라이시가 했다고 밝힌다. 그와 시라이시와의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다.

細井肇(1921) 「第八輯の巻頭に」 『通俗朝鮮文庫』第8輯 自由討究社. p.5

細井肇(1922) 『東經正義』 自由討究社. p.6

56) 조선 고서를 적지 않게 번역한 아오야기 쓰나타로가 자유토구사의 조선 고서 번역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57) 시마나카 유죠가 「사씨남정기의 구어역에 관하여」에서 밝히고 있듯이, 『사씨남정기』를 일본어로 번역하던 시점에서 볼 때 그와 호소이 하지메는 이미 십 수 년 전부터 친교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어떤 잡지의 편집도 호소이와 같이 했다고 고백한다.

島中雄三(1921) 앞의 책(「謝氏南征記の口語訳について」). p.3

58) 조선인 번역자로서는 조경하가 눈에 띈다. 임종국은 조경하가 서울 출생으로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했고 교사와 서기를 거쳐 1939년에는 충청남도 참여관(산업)을 역임했다고 하고, 광복회는 그가 충청남도 도지사도 지냈다고 적고 있다. 『친일인명사전수록대상자명단』에는 조경하에 대해 좀더 자세한 언급이 있다. 이에 의하면 그는 1888년 생으로 나중에 ‘靑橋鏡夏’로 창씨개명을 했다고 한다. 중위원 참의, 경상북도 달성군 군수도 역임했으며, 주요 훈포상도 받았다고 한다. 정미경은 조경하가 조선총독부의 사무관도 지냈다고 지적한다.

임종국(2004) 「일제 말 친일 군상의 실태」 『해방전후사의 인식』 1 한길사. p.233

광복회(2002)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우삼. p.242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민족문제연구소 편(2000) 『친일인명사전수록대상자명단』 [www.minjok](http://www.minjok.or.kr)

www.minjok.or.kr. p.109

鄭美京(2006) 「植民地朝鮮における韓国古典小説翻訳の発刊をめぐる一考察」 『韓国言語文化研究』 第13号, 九州大学韓国言語文化研究会. p.20

윤색을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조선 고서를 번역하면서 발견해 낸 조선(인)의 ‘심성’ 곧 ‘민족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

4. 일본인 번역자들이 발견해 낸 ‘조선(인)’

자유토구사의 창립 목적은 다음과 같은 「자유토구사 취의서」에 잘 나타나 있다.

내선의 융합은 실로 이런 의미에서 바로 지금 해야 할 급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 양자(조선인과 일본인, 인용자)의 인심(人心)은 서로 어긋나고 동떨어진 것이 극에 달했다. 3월 소요(3·1 독립운동. 인용자)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인에 대한) ‘몰이해(無理解)’ 때문이다. ……
우리들이 내선의 융합을 진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선문화를 연구해야 한다. 실로 이 탄식을 한 지 오래 됐다. 하지만 준비 없이 일을 서둘러 과거 10년간을 돌아보면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생각할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한 가지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우리는 우선 …… 자유토구사를 창립한다. 그리고 우리는 고사고서(古事古書)를 조사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어찌 일을 마쳤다고 하겠는가. 천하에 같은 걱정을 하는 인사의 도움을 간절히 바란다.⁵⁹⁾

내선융합을 위해서는 조선문화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토구사의 설립 이념이었다.

그러면 내선융합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을까? 호소이 하지메는 『목민심서』를 번역한 후,

『목민심서』에 나타난 조선의 고례(古禮)를 이해하면 조선의 지방 행정을 해나는 데 편의를 준다.⁶⁰⁾

고 말한다. 또한 나가노 나오히코는 『징비록』을 번역하고 나서 “『징비록』에서 조선통치상의 가장 유익한 자료를 발견할 수 있다.”⁶¹⁾고 하고, 시미즈 켄키치는 『병자일기』번역을 마친 후, “조선통치”⁶²⁾에 도움을 주고자 『병자

59) 島中雄三(1921)「自由討究社趣意書」『通俗朝鮮文庫』第2輯 自由討究社. pp.1-2

60) 細井肇(1936)「牧民心書の訳述につて」『朝鮮叢書』朝鮮問題研究所. p.2

61) 長野直彦(1921)「懲愆錄の訳出に就て」『通俗朝鮮文庫』第5輯 自由討究社. p.3

62) 清水鍵吉(1921) 앞의 책(「丙子日記の訳述に就て」). p.8

일기』를 번역했다고 밝힌다. 결국 내선융합이란 조선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내선융합 곧 조선 통치에 도움을 주고자 조선문화의 연구를 시작한 그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다름 아닌 조선민족의 ‘심성(心性)’ 곧 ‘민족성’이었다.⁶³⁾ 호소이 하지메는 「장화홍련전을 번역하고」에서 이 책은 조선인의 민족 심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⁶⁴⁾, 「『제비 다리』를 번역하고」에서도 ‘조선의 민족성’이 잘 보인다고 하고⁶⁵⁾, 히라이와 유스게가 번역한 『파수록』⁶⁶⁾의 평론문격인 「서문」에서도 ‘조선의 민족심성’을 알고 싶다고 언급한다.⁶⁷⁾ 또한 시미즈 켄키치도 「병자일기의 역술에 대해」에서 ‘야마토민족과 조선민족과의 심성 비교’에 관심이 있다고 말한다.⁶⁸⁾

그렇다면 일본인과 조선인의 융합을 위해, 표현을 바꾸면 조선 통치를 위해 조선문화의 연구 곧 조선인의 민족성에 관심을 보이면서 조선 고서를 번역했던 번역자들은 번역을 통해 어떤 ‘조선(인)’ 상을 발견했을까? 각각의 번역서에 보이는 ‘역자의 말’을 중심으로 그들이 발견해 낸 ‘조선(인)’ 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단, 조정하의 경우와 같이 ‘역자의 말’이 없거나, ‘역자의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선(인)’ 상을 기술하지 않은 것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먼저 조서 고서를 번역한 각각의 번역자가 발견해 낸 ‘조선’ 상은 사대주의 국가로서의 조선, 지나(支那)의 ‘속국’으로서의 조선, 모방 문명으로서의 조선, 문약(文弱)한 조선이었다.

첫째, 사대주의 국가로서의 조선에 대한 언급을 보자. 이마무라 토모는 「조선세시기의 역술에 대해서」에서 『조선세시기』는 홍석모의 『동국세시기』를 번역한 것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홍석모가 『동국세시기』에서 조선 풍속의 연혁과 기원 등을 설명할 때 뭐든지 지나로부터 전래됐다고 말한다고 지적한다.⁶⁹⁾ 그리고 이런 홍석모의 생각을 이마무라 토모는 ‘사대사상(事大思想)’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시미즈 켄키치는 「병자일기의 역술에 대해

63) 민족성 담론은 1920년대의 일본 지성계를 풍미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64) 細井肇(1921) 「薔花紅蓮伝を閲して」 『通俗朝鮮文庫』第10輯 自由討究社. p.61

65) 細井肇(1924) 「『燕の脚』を閲して」 『朝鮮文学傑作集』第1卷 奉公会. p.95

66) 히라이와 유스게는 자신이 번역한 『파수록』에 대한 역자의 말을 남기지 않았다.

67) 細井肇(1923) 「はしがき」 『鮮満叢書』第10卷 自由討究社. p.2

68) 清水鍵吉(1921) 앞의 책(「丙子日記の訳述に就て」). p.3

덧붙여 그는 『장릉지』와 『분당사화의 검토』에는 조선인의 ‘음모(陰謀)’와 ‘배제(排擠)’가 잘 나타나 있다고 지적한다.

69) 今村鞆(1921) 앞의 책(「朝鮮歳時記の訳出について」). p.3

서」에서 조선을 ‘지성사대국(至誠事大國)’·‘사대국’이라 평가한다.⁷⁰⁾ 호소이 하지메도 「『제비 다리』를 번역하고」에서 궁하면 반드시 다른 데서 필요한 것을 받으려고 하는 의혜(依惠)주의가 국격(國格)으로 나타나면 인접한 강대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된다면서 조선이 그렇다고 말한다.⁷¹⁾

둘째, 지나의 속국으로서의 조선이다. 나가노 나오히코는 「징비록의 역술에 대해서」에서 조선은 ‘대국(大國) 곧 중주국인 지나’의 ‘속국’임에 만족했다고 지적한다.⁷²⁾

셋째, 모방 문명으로서의 조선이다. 호소이 하지메는 「아언각비를 번역하고」에서 조선 문명을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모방 문명이라고 위치 지우고, 모방 문명의 비애, 아니 어떤 문명도 갖지 못한 조선에서 비애를 느낀다고 말한다.⁷³⁾

넷째, 문약한 조선이다. 호소이 하지메는 「해유록을 번역하고」에서 일본을 야만이라고 말하고 냉멸(冷蔑)하는 신유한에 대해 일본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식견이 없는 일개 문사(文士)라고 평한다. 그리고 조선을 ‘문약’하다고 지적한다.⁷⁴⁾

다음으로 조선 고서를 번역한 각각의 번역자가 발견해 낸 ‘조선인’ 상은 탐관오리에 시달리는 조선인, 당쟁을 즐기는 조선인, 미신을 믿는 조선인, 여성을 물격화하고 잔인한 복수를 하는 조선인, 가족주의의 폐해에 찌들고 의혜주의적인 조선인, 악정(惡政)에 순종적인 노예적 및 굴종적인 조선인, 시기심과 의심(猜疑)이 많은 조선인이었다.

첫째, 탐관오리에 시달리는 조선인이다. 시라이시 아쓰시는 「홍길동전의 권두에」에서 조선 사회는 관리와 백성(生民)이라는 계급으로 구성된 사회라고 하면서, 조선시대 수백 년 동안 조선의 백성은 관리인 탐관오리에 줄곧 시달렸다고 말하면서 조선인을 동정하고 있다.⁷⁵⁾

둘째, 당쟁을 즐기는 조선인이다. 호소이 하지메는 「목민심서의 역술에 대해서」에서 조선의 중앙 정부는 분당 사회를 조장했다고 한다.⁷⁶⁾ 또한 그는 「장릉지의 역술에 대해서」에서 무오사화(戊午士禍)는 봉당사화의 발단이라고 말하며, 여기서 조선 민족정신의 추악한 면을 발견해 낸다.⁷⁷⁾ 계속해서 그는

70) 清水鍵吉(1921) 앞의 책(「丙子日記の訳述に就て」). pp.3-4

71) 細井肇(1924) 앞의 책(「『燕の脚』を閲して」). p.95

72) 長野直彦(1921) 앞의 책(「懲愆録の訳出に就て」). pp.2-4

73) 細井肇(1921) 「雅言覺非を訳して」 『通俗朝鮮文庫』 第10輯 自由討究社. pp.121-124

74) 細井肇(1922) 「海遊録を訳して」 『鮮満叢書』 第2卷 自由討究社. pp. 1-12

75) 白石重(1921) 「洪吉童伝の巻頭に」 『通俗朝鮮文庫』 第7輯 自由討究社. pp1-2

76) 細井肇(1936) 앞의 책(「牧民心書の訳述につて」). p.7

77) 細井肇(1921) 「莊陵誌の訳述について」 『通俗朝鮮文庫』 第2輯 自由討究社. p.4

「제8집의 권두에」서 시미즈 켄키치가 번역한 『팔역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전편(全篇)⁷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민총론(四民總論), 팔도총론(八道總論), 전도(全道) 각별의 논술(論述) 및 팔도(八道)의 인심(人心)만을 게출(揭出)했다. 팔도의 인심은 당화(黨禍)와 관련된 기사가 많다. 이조사림(李朝士林)의 당화와 같이 읽으면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⁷⁹⁾

셋째, 미신을 믿는 조선인이다. 호소이 하지메는 「장화홍련전을 번역하고」에서 조선인에게는 미신을 믿는 것이 뿌리 깊다⁸⁰⁾고 지적한다. 또한 시미즈 켄키치는 「주영편을 읽고」에서 그가 『주영편』에서 주목한 것은 ‘조선인의 미신’ 이었다고 한다. 즉 그는 실행철학인 유교를 국가통치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조선에서 의외로 귀신을 신봉한다든지 미신을 믿는다고 지적한다.⁸¹⁾ 계속해서 그는 「오백년기담을 읽고」에서 조선인은 ‘속설(俗說)’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조선의 책(書物)은 어떤 서책도 거의 미신(迷信)과 전설(傳說)로 장식되어 있다. 본서(『오백년기담』을 가리킴. 인용자)도 또한 (그런 류의 것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미신이 제재로 되어 있다.⁸²⁾

고 지적한다.

넷째, 여성을 물격화하고 잔인한 복수를 하는 조선인이다. 호소이 하지메는 히라이와 유스게가 번역한 『과수록』의 평론문격인 「서문」에서 조선인은 아편, 코카인, 몰핀을 즐긴다고 말한다. 그리고 『과수록』에서 여성을 물격화했던 조선의 병폐를 찾아내고 동시에 조선인의 ‘복수 행위’가 잔인하다고 지적한다.⁸³⁾

한편 그는 조선에는 육신(六臣)과 같은 존경할 인물이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불쾌(不快)하고 어두운(陰暗) 반도(半島)의 사실(史實)’에서는 어디까지나 한 점의 반딧불과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78) 『팔역지』는 팔도총론과 복거(卜居)총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후자에는 지리, 생리(生利), 인심, 산수(山水)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미즈는 이 가운데 ‘인심’만을 골라 번역했다.

79) 細井肇(1921) 앞의 책(「第八輯の卷頭に」). pp.4-5

80) 細井肇(1921) 앞의 책(「薔花紅蓮伝を關して」). p.61

이 밖에도 호소이는 조선의 민족 심성으로 효심이 깊은 것(그러나 그가 이것을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로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집요한 것, 복수심이 강한 것, 공리적 관념 곧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을 제시한다(같은 책. pp.61-81)

81) 清水鍵吉(1923) 「畫永編を讀みて」 『鮮滿叢書』 第8卷 自由討究社. pp.1-3

82) 清水鍵吉(1923) 「五百年奇譚を讀みて」 『鮮滿叢書』 第11卷 自由討究社. p.3

83) 細井肇(1923) 앞의 책(「はしがき」). p.2

다섯 째, 가족주의의 폐해에 찌들고 의혜주의적인 조선인이다. 호소이 하지메는 「『제비 다리』를 번역하고」에서,

『제비 다리』의 구상을 돌아봐도 동생이 형의 가족에 기식(寄食)하는 것이 당연한 듯이 쓰여 있는 것은 이 가족제도의 폐해에 의한 것이다. 또한 궁하면 반드시 다른 데서 필요한 것을 받으려고 하는 의혜주의는 흥부에게도 흥부의 처에게도 또한 그 자식에게도 침투해 있다.⁸⁴⁾

고 말한다.

여섯 째, 악정에 순종적인 노예적 및 굴종적인 조선인이다. 호소이 하지메는 「목민심서의 역술에 대해」에서 『목민심서』를 번역한 후 그 감상을 적고 있는데, 그는 느낀 바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한다. 그 가운데에는 비리횡동(非理橫道)을 따르는 조선인의 심성 곧 악정에 순종적인 조선 상민(常民)의 노예적 굴종성이 들어 있다.⁸⁵⁾

일곱 째, 시기심과 의심이 많은 조선인이다. 호소이 하지메는 신유한이 쓴 『해유록』을 검토한 후, 조선인이 시기심과 의심이 많은 심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⁸⁶⁾

5. 나오면서

호소이 하지메는 조선에서 3·1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그 원인을 수천 년의 특수한 역사와 습속 및 심성을 가진 조선인을 이해하지 못한 식민정책에서 찾았고, 내선융합을 위해서는 조선문화의 연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된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호소이의 인식은 그만의 것이 아니었다. 다카하시 도루(高橋亨)나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등에게서도 보인다. 다만 이들과 조선총독부의 어용언론인⁸⁷⁾이며 조선전문가로 활동했던 호소이 사이에는 다른 점이 있었다. 첫째, 호소이는 그들보다도 조선 고서의 번역에 대단한 관심을 보였다. 둘째, 호소이는 개인 레벨에서 조선 고서를 번역하는데 만족하지

84) 細井肇(1924) 앞의 책(「『燕の脚』を閲了して」). pp.94-95

85) 細井肇(1936) 앞의 책(「牧民心書の訳述につて」). p.3

나머지 두 개는 조선 정치의 부패와 유교의 폐해이다. 그 밖에도 조선인의 심술(心術)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든다. 즉 일본인은 담백한데, 조선인은 성급하고, 집요하고, 음험하고, 교활하다. 특히 조선인은 거짓말을 잘 하고, 물건을 훔치는 것은 일상다반사다.

86) 細井肇(1922) 앞의 책(「海遊録を訳了して」). p.2

87) 다카사키 소지 저·김순희 역(2005) 『아사카와 다쿠미 평전』 효형출판. p.105

않고, 조선 고서를 전문적으로 번역하여 출간할 출판사를 직접 경영했다는 점이다.

호소이는 자유토구사를 설립한 후, 기획 시리즈인 『통속조선문고』(1921년)와 『선만총서』(1922년-1923년)를 통해 조선 고서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세상에 내놓는다. ‘조선 고서의 번역’이라는 기획에 참여한 사람은 총 9명이었다. 일본인으로는 이마무라 토모, 나가노 나오히코, 시마나카 유죠, 히라이와 유스게, 시라이시 아쓰시, 호소이 하지메, 시미즈 켄키치, 오사와 류지로가 있었고, 조선인으로는 조경하가 있었다. 이들은 조선 고서를 번역하면서 ‘조선’과 ‘조선인’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이 발견해 낸 ‘조선’상은 사대주의 국가로서의 조선, 지나의 속국으로서의 조선, 모방 문명으로서의 조선, 문약한 조선이었다. 한편 그들이 발견해 낸 ‘조선인’상은 탐관오리에 시달리는 조선인, 당쟁을 즐기는 조선인, 미신을 믿는 조선인, 여성을 물격화하고 잔인한 복수를 하는 조선인, 가족주의의 폐해에 찌들고 의혜주의적인 조선인, 악정에 순종적인 노예적 및 굴종적인 조선인, 시기심과 의심이 많은 조선인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발견해 낸 ‘조선(인)’상은 사실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조선(인)’에 대한 인식을 조선 고서에 투영하여 형상화 낸 ‘조선(인)상’에 다름 아니었다.⁸⁸⁾ 또한 번역을 통해 이들이 구축한 부정적 타자로서의 ‘조선(인)’상은 결국에는 긍정적 주체로서의 ‘일본(인)’상을 구축하게 되었다.

덧붙여 조선 고서의 번역이라는 자유토구사의 기획은 어떤 의미를 가진 작업이었을까? 그것은 한 개인이 고서를 번역했다는 것과 다르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⁸⁹⁾ 즉 ‘조선 고서’에는 이러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 곧 조선 고서의 ‘정전(canon)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다음과 같은 번역 양상을 고려해 보면 이해하기 쉽다.

호소이 하지메는 자유토구사의 문을 닫고, 1924년에는 봉공회를 설립하여

88) 자유토구사의 조선 고서 번역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번역자들이 호소이가 가지고 있던 ‘조선(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1911년에 호소이가 지은 『조선문화사론』의 다음과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반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또한 실로 현재의 상황을 수궁할 만하다. (반도의) 정치는 창부의 심술에 가깝고, (반도의) 문학은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 독창적인 발명도 없으며, 그 신앙(信敎)은 오로지 미신일 뿐이다. 위정자가 권력, 허영, 음모, 수다스러움을 좋아했고, 외척의 발호와 유림의 재앙이 계속되었다. 백성(民庶)은 끊임없이 호랑이보다 무서운 가혹한 정치에 억눌렸으며, 왕족도 관료(權官)도 양반도 상민도 모두 생명을 보장받거나 재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나쁜 인습이 장기간 계속되어 백성을 험하게 기만하였으니 분노, 고통을 드러내지 않고 비굴하게 참는 민족성이 배양되었다.”

細井肇(1911) 『朝鮮文化史論』 朝鮮研究会, pp.16-17

89) 예를 들어 1904년에 이와야 사자나미(巖谷小波)는 『토끼전(龍宮の死者)』을 번역한다. 하지만 이와야의 『토끼전』 일본어역은 단발적으로 끝났기에 호소이 등의 기획프로젝트와 같이 조선 고전의 정전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조선문학걸작집』(전10편)을 편찬한다. 하지만 이것은 『통속조선문고』와 『선만총서』에 수록된 것을 다이제스트한 것이었다. 『춘향전』, 『심청전』, 『제비 다리』, 『사씨남정기』, 『추풍감별곡』, 『장화홍련전』, 『구운몽』, 『남훈태평가』, 『숙향전』, 『운영전』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호소이가 죽은 후인 1936년에 조선문제연구소는 『조선총서』(전3권)를 발행한다. 이것은 작고한 호소이가 주축이 되어 번역·출판한 도서 가운데 14권을 추린 것이다. 『목민심서』·『아언각비』·『주영편』·『해유록』·『병자일기』·『징비록』·『붕당사화의 검토』·『이조의 문신』·『장릉지』·『삼국유사』·『오백년기담』·『조선세시기』·『팔역지』·『정감록』이 그것이다.

결국 자유토구사가 출간한 『통속조선문고』와 『선만총서』에 수록된 조선 고서는 봉공회의 『조선문학걸작집』으로, 그리고 조선문제연구소의 『조선총서』로 이어진다. 그리고 조선 고서의 정전화⁹⁰⁾에 영향을 미친 이들 번역 작품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좀 전에 자세히 언급했던 바와 같이 사대주의 국가로서의 ‘조선’ 등과 탐관오리에 시달리는 ‘조선인’ 등이었다.⁹¹⁾

90) ‘조선 고서의 정전화’에 대한 좀더 자세한 고찰은 다음 기회에 하고자 한다.

91) 본고는 한국일본문화학회 제36회 한국학술대회(2010년 4월 24일,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발표한 것을 토대로 하여 그 내용을 확대·발전시킨 것이다. 그리고 조선고서간행회 및 조선연구회의 번역자 그리고 그들이 발견해 낸 ‘조선(인)’ 상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룰 예정이다. 덧붙여 줄고를 꼼꼼히 심사해 주신 세 분의 심사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린다.

【参考文献】

- 곤도 시로스케 저·이연숙 역(2007) 『대한제국황실비사』 이마고. p.54
광복회(2002)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우삼. p.242
남근우(2008) 『‘조선민속학’ 과 식민주의』 동국대출판부. p.122
다카사키 소지 저·김순희 역(2005) 『아사카와 다쿠미 평전』 효형출판. p.105
_____·이규수 역(2006) 『식민지조선의 일본인들』 역사와비평사. pp.59-60
다테노 아키라 편저 오정환·이정환 역(2006) 『그때 그 일본인들』 한길사. p.109
박상현(2009) 「제국일본과 번역-호소이 하지메의 조선 고소설 번역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제71집, 한국일어일문학회. pp.433-434
임중국(2004) 「일제 말 친일 군상의 실태」 『해방전후사의 인식』 1 한길사. p.233
최혜주(2009) 「한말 일제하 재조일본인의 조선 고서 간행사업」 『대동문화연구』 제66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p.417-448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민족문제연구소 편(2000) 『친일인명사전수록대상자명단』 www.minjok.or.kr. p.109
青柳綱太郎(1921) 「跋」 『鮮滿の經營』 自由討究社. p.1
_____ (1923) 『朝鮮統治論』 朝鮮研究会. p.1
今村軻(1921) 「朝鮮歲時記の訳出について」 『通俗朝鮮文庫』 第4輯 自由討究社. pp.1-2
島中雄三(1921) 「謝氏南征記の口語訳について」 『通俗朝鮮文庫』 第2輯 自由討究社. p.3
清水鍵吉(1921) 「丙子日記の訳述に就て」 『通俗朝鮮文庫』 第6輯 自由討究社. p.2
_____ (1923) 「五百年奇譚を讀みて」 『鮮滿叢書』 第11卷 自由討究社. p.3
_____ (1923) 「晝永編を讀みて」 『鮮滿叢書』 第8卷 自由討究社. pp.1-3
白石重(1921) 「洪吉童伝の卷頭に」 『通俗朝鮮文庫』 第7輯 自由討究社. pp.1-2
鄭美京(2006) 「植民地朝鮮における韓国古典小説翻譯の発刊をめぐる一考察」 『韓国言語文化研究』 第13号, 九州大学韓国言語文化研究会. p.20
長野直彦(1921) 「懲毖錄の訳述に就て」 『通俗朝鮮文庫』 第5輯 自由討究社. p.3
丸山眞男·加藤周一(1998) 『翻譯と日本の近代』 岩波新書. p.105
細井肇(1911) 『朝鮮文化史論』 朝鮮研究会. pp.16-17
_____ (1921) 『通俗朝鮮文庫』 第2輯 自由討究社. pp.1-2
_____ (1921) 「莊陵誌の訳述について」 『通俗朝鮮文庫』 第2輯 自由討究社. p.4
_____ (1921) 「広寒樓記の卷末に」 『通俗朝鮮文庫』 第4輯 自由討究社. p.77
_____ (1921) 「第八輯の卷頭に」 『通俗朝鮮文庫』 第8輯 自由討究社. p.5
_____ (1921) 『通俗朝鮮文庫』 第10輯 自由討究社. pp.16-17
_____ (1921) 「薔花紅蓮伝を閱了して」 『通俗朝鮮文庫』 第10輯 自由討究社. p.61
_____ (1921) 「雅言覺非を訳了して」 『通俗朝鮮文庫』 第10輯 自由討究社. pp.121-124
_____ (1922) 「海遊錄を訳了して」 『鮮滿叢書』 第2卷 自由討究社. pp. 1-12
_____ (1922) 『鮮滿叢書』 第3卷 自由討究社. p.4
_____ (1922) 『鮮滿叢書』 第3卷 自由討究社. p.4
_____ (1922) 『東経正義』 自由討究社. p.6
_____ (1923) 「三国遺事」 『鮮滿叢書』 第6卷 自由討究社. p.72
_____ (1923) 「はしがき」 『鮮滿叢書』 第10卷 自由討究社. p.2
_____ (1924) 「『燕の脚』を閱了して」 『朝鮮文学傑作集』 第1卷 奉公会. p.95
_____ (1936) 「牧民心書の訳述につて」 『朝鮮叢書』 朝鮮問題研究所. p.2

要 旨

細井肇は自由討究社を設立した後、『通俗朝鮮文庫』（1921年）と『鮮満叢書』（1922年-1923年）といった企画シリーズを通して朝鮮の古史古書を日本語で訳し、世に出した。この企画に参加した人はすべて9名であった。日本人としては細井肇、島中雄三、清水鍵吉、今村鞆、長野直彦、白石重、大沢竜二郎、平岩佑介が加わり、朝鮮人としては趙鏡夏が加わった。これらの人たちは朝鮮の古史古書を翻訳する中で、「朝鮮」と「朝鮮人」を発見するようになるが、そのことは彼らが記した訳者の「はしがき」によくあらわれている。その内容をまとめると以下ようになる。

まず、「朝鮮」については事大主義国家としての朝鮮、支那の属国としての朝鮮、模倣文明としての朝鮮、文弱の朝鮮があげられ、次に、「朝鮮人」については貪官汚吏の弊に苦しんでいる朝鮮人、黨争を助長し合う朝鮮人、荒唐無稽の迷信を信じ込む朝鮮人、女性を物格視する朝鮮人、残忍な復讐をする朝鮮人、家族主義の弊害や依惠主義が蔓延する朝鮮人、奴隷のおよび屈從的な生活を強いられている朝鮮人、猜疑深い朝鮮人があげられた。

ところが、彼らが「発見」した「朝鮮(人)」像は、実は彼らが持っていた「朝鮮(人)」に対する認識を朝鮮の古史古書に投影して作り出した「朝鮮(人)」像に違いない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また、翻訳を通して彼らが構築した否定的な他者としての「朝鮮(人)」像は、結局肯定的な主体としての「日本(人)」像を構築する効果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

ところで、朝鮮の古史古書の翻訳といった自由討究社の企画ははたしていかなる意味を持つものだったか。そのことは一個人が朝鮮の古史古書を日本語で訳したのとは大いに異なる点でその意味が考えられよう。すなわち、自由討究社の企画は朝鮮の「古史古書」の「正典(canon)」化に影響を及ぼし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そのことは次のような翻訳の様相をみるとわかりやすい。

細井は1924年に奉公会を設立し、『朝鮮文学傑作集』（全10編）を編纂した。だが、これらはつまり『通俗朝鮮文庫』と『鮮満叢書』に納められたもののダイジェスト版であった。そして、そこには『春香伝』・『沈清伝』・『燕の脚』・『謝氏南征記』・『秋風感別曲』・『薔花紅蓮伝』・『九雲夢』・『南薰太平歌』・『淑香傳』・『雲英傳』が収録された。

また、細井が死亡した後、1936年には朝鮮問題研究所から『朝鮮叢書』（全3巻）が発行された。これは細井が主軸となって翻訳・出版した書物の中から14冊を選び出したものである。『牧民心書』・『雅言覚非』・『晝永編』・『海遊録』・『丙子日記』・『懲愆録』・『朋黨士禍の検討』・『李朝の文臣』・『莊陵誌』・『三国遺事』・『五百年奇譚』・『朝鮮歳時記』・『八域志』・『鄭鑑録』がそれだ。

結局、自由討究社が出版した『通俗朝鮮文庫』と『鮮満叢書』に納められた朝鮮の「古史古書」は奉公会の『朝鮮文学傑作集』に、また朝鮮問題研究所の『朝鮮叢書』に収録されていく。そして朝鮮の「古史古書」の「正典」化に影響を及ぼしたこれらの翻訳作品が日本人の読者に伝えたかったことは、先ほど詳しく述べたように、事大主義国家としての「朝鮮」などと、貪官汚吏の弊に苦しんでいる「朝鮮人」などであった。

キーワード： 翻訳、朝鮮古書、発見、在朝日本人、自由討究社、キャンノン

투 고 : 2010. 5. 31
1차 심사 : 2010. 6. 12
2차 심사 : 2010. 6. 26